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 시점 2026. 11. 27.(금) 12:00 (2026. 11. 28.(토) 조간) 배포 2026.11.27.(금) 09:00

# 대한민국,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에서 디지털 의제 주도 및 세계적 지도력 강화

– 국제전기통신연합 이사국 10선 연임·전파규칙위원회 24년만 진출 –

– 한국 주도 기고 채택 및 주요 의제 논의에서 국제적 영향력 확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전권회의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AI·디지털 정책 비전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ICT 분야 의제 형성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영향력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① ITU 이사국 10회 연속 진출 및 전파규칙위원(Radio Regulation Board) 24년 만의 재진출

우리나라는 이번 이사국 선거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 후보국 중 공동 9위로 당선되었다. 이로써 1989년부터 10회 연속 ITU 이사국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아울러 RRB 위원 선거에서는 박종민 후보가 136표를 획득하여 당선되었다. 우리나라가 RRB 위원을 배출한 것은 2002년 이후 24년 만이다.

ITU 이사국은 ITU의 주요 정책과 전략, 예산 및 조직 운영을 감독하는 핵심 의사결정 기구이며, RRB는 국제 전파규칙의 적용과 해석, 주파수 및 위성궤도 이용 관련 규제·기술적 사안을 심의하는 전문기구이다.

이번 성과를 통해 우리나라는 글로벌 디지털 정책과 국제 전파규범을 형성하는 핵심 논의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한층 강화하였다. 특히

6G, 저궤도 위성통신 등 미래 통신 분야의 국제 규범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AI·디지털 등 글로벌 핵심 의제 논의에서 한국의 정책 영향력 확대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이 280여 건의 기고를 제출하였으며, 3주간의 치열한 논의와 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신규 결의 및 기존 결의 개정 등 총 60여 건의 제안이 승인·채택되었다.

우리 대표단은 보편적이고 의미 있는 연결성 보장, 디지털 포용, AI 등 신흥기술의 책임 있는 활용을 비롯한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주요국과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며, ITU의 핵심 가치 실현과 글로벌 디지털 협력 확대에 동참하였다. 이 중 한국이 주도한 결의 개정 총 9건이 승인·채택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기고문으로는 디지털 격차 해소 분야에서는 통신망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 품질과 이용 여건을 함께 고려해 누구나 일상에서 필요한 디지털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반영됐다. 또한 디지털 포용 분야에서는 신기술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을 확대하며 정책과 표준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도록 했다. 청년이 표준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그 의견이 후속 논의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과 온라인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 및 안전한 인터넷 이용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누구나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 구현 등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디지털 정책의 가치를 국제사회 공동의 정책 방향에 반영하고, 글로벌 디지털 의제 형성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정책적 영향력을 한층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박민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부연구위원은 7개 분과위원회 중 정책법률위원회 부의장직을 수행하며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시

의적절한 정책적·기술적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논의의 진전과 회원국간 합의 형성에 기여하였다.

③ 국제 협력 네트워크 확대 및 글로벌 디지털 협력 강화

우리 대표단은 전권회의 기간 중 주요국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과의 양자·다자 협의를 통해 AI, 디지털 기술, 미래 통신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디지털 격차 해소, AI 기술의 혜택 공유 등 국제사회의 공동 과제에 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ICT 발전 경험과 정책적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권회의에서 확보한 국제적 위상과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ITU 이사국 및 RRB 위원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AI·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정책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전권회의에서의 성과는 대한민국의 뛰어난 ICT 역량과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AI와 디지털 기술이 인류 공동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디지털 의제 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담당 부서 | 국제협력관<br>다자협력담당관 | 책임자 | 과 장 | 한소희 (044-202-4360) |
|---|---|---|---|---|
| | | 담당자 | 사무관 | 김현호 (044-202-4361) |
| | | | 주무관 | 권희주 (044-202-4683) |


대체불가 대한민국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삶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OPEN 인공지능 학습허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